

수석보좌관회의 [공무원특별당부]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나라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반드시 중심을 잡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주기 바랍니다. 최근 몇 가지 여론의 분위기가 대단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경계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경기와 경제 살리기에 있어서 그 동안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지출정책이라든지 조세정책이라든지 그밖에 여러 정책을 통해서 해 왔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만은 조심스럽게 해 왔을 뿐인데 최근에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됐지만 이것도 그동안에 정부가 이용해 왔던 재정정책이나 소비촉진을 위한 조세정책이나 마찬가지로 하나의 정책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를 계기로 일부에서는 이제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정책전환을 하는 것으로 아주 확대해석하고 비로소 부양책이 시작된 것처럼 얘기하기

도 합니다. 그동안에는 정부가 아무 경기대응을 하지 않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것처럼 이렇게 전제하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대단히 혼란스럽게 하고 또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보도나 분위기에 접하면서 그와 같은 분위기에 휩쓸릴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이 전환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공무원들이 그 방향으로 정책을 몰아갈 때 그야말로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공무원들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심을 잡아 달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건데 그동안에 경기대응,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 왔고 앞으로도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경제 살리기를 해 나갈 것이다. 흔들리지 않고 계속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을 반드시 안정시킨다는 정책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목표와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개별적인 정책들을 현실에 맞도록 유연성 있게, 융통성 있게 구사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한 두개의 현실적 정책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여론이 흘러감으로써 국민들에게 매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그것이 또 다른 부동산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부동산정책은 일관되게 가지고 가겠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책수행에 있어서 이 점에 관해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다른 정책도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 그리고 공무원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각자 맡은 일에 전념해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가지고 나가주시기 바란다. 정치든 행정이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비로소 성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